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22년 12월 15일

제 48 호

• 발행인: 박찬숙 • 편집장: 이현우
• 편집위원: 채영신 황인우 유영미
유지현 오유경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9-1102 E-mail annaclub7@naver.com ☎ 010-9025-4663

아나운서클럽 송년회 12월 27일 개최 예정

한국아나운서클럽(회장 박찬숙) 송년회가 오는 12월 27일(화) 오후 6시 퍼시픽호텔 연회장에서 열린다. 원래 4분기 모임은 아나운서연합회가 개최하는 아나운서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대신해왔다. 박 회장은 3분기 모임에서, '4분기 정례 모임 겸 송년회를 오는 12월 27일에 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아나운서대상시상식, 올해도 공개 행사 없이 치러

대상 KBS 이영호 아나운서클럽상 SBS 염용철 cpbc 김슬애
장기범상 대내 KBS 한국어연구부 대외 KT 양순석 상무

한국아나운서대상시상식이 작년에 이어 시상식을 생략한 채 치러진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KBS 김보민)는 소속 지회에서 라디오와 TV로 나누어 각 부문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10개사 협회장들이 투표해 2022 아나운서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영예의 수상자는 대상 KBS 이영호 아나운서를 비롯해, 아나운서클럽상 SBS 염용철과 cpbc 김슬애 아나운서, 장기범상 KBS 한국어연구부와 KT 양순석 상무, 공로상 KBS 서기철, 스포츠캐스터상 jtbc 임경진 아나운서 등이다.

아나운서연합회는 코로나19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 행사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우세해, 시상식을 거행하지 않고 각 방송사별로 상패와 부상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집 2, 3면에 계속

박선영 회원 물망초음악회, 윤지영 회원 사회로 개최

내년 UN세계인권선언 75주년 앞두고 축하 캠페인의 서막 장식



박선영(사진 아랫줄 왼쪽) 이사장과 물망초합창단원



윤지영(사진 왼쪽) 회원과 축하 중인 UN인권사무소 한국 지사장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전 MBC))의 2022물망초음악회가 12월 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윤지영(전 SBS) 회원의 사회로 열렸다.

이번 공연은 '탈북자의 대모'로 불리는 박선영 회원이 '역사의 조난자들을 잊지말자'며 창립한 (사)물망초 10주년 기념 음악회였다. 또한 내년 UN 인권선언 75주년을 축하하는 캠페인의 서막을 여는 의미로 주한 외교 사절들과 함께했으며 UN 북한인권사무소와 G&M이 후원했다.

성악가인 윤지영 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무대에 오른 물망초 합창단(지휘자 박창석)의 탈북 여성들을 격려하며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를 편곡한 노래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16강 진출

선수들의 투혼, 모두에게 용기 북돋아 줘

우리나라가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 까지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16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KBS 이광용·남현중, MBC 김성주·김나진, SBS 배성재 등 중계 캐스터 들은 해설자와 호흡을 맞춰가며 현장의 열기를 전해주었다.



우리나라는 11월 24일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비긴 후, 가나에 3:2로 패하며 전망을 어둡게 하였으나 축구 강국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해, 예선 전적 1승 1무 1패 다득점 찬스로 본선에 올랐다.

송 / 년 / 사

새로운 생각으로 활짝 열릴 엔데믹을 기대하며

이름이 잊혀지면 사람도 잊혀진다 '는 말이 있습니다. 꽃보다 찬란했던 올해 단풍도 세월 앞에 낙엽으로 떨어져 잊혀졌습니다.

하루는 길고 일년은 짧다 는 말도 생각납니다.

외출이 편하지 않은 지 3년째

코로나19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연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뀐다' 해서

그 전 같은 엔데믹은 아닐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는

활발한 엔데믹을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십시요.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박찬숙 회장

글 사진 박찬숙

원로 여성 아나운서들 훈훈한 감동 사연

재미동포 김유선 회원 모국 여행 중 KBS 깜짝 방문

관악FM DJ 이성화 회원 YTN 캠페인 출연



KBS 아나운서실을 방문한 김유선(윗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 회원



이성화 회원

1953년에 입사한 재미동포 김유선(93세) 회원이 10월 28일 오후, 뜻밖의 인연으로 서울 여의도 KBS를 방문했다.

경부선 KTX 열차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주선으로 아나운서실을 찾은 김 회원은 실장실에 걸려 있는 '서울중앙방송국(KBS) 아나운서실을 빛낸 사람들' 액자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눈물을 보이는 등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

김유선 회원은 6.25 당시 임시 수도 부산에서 방송했으며, 일본 오키나와 유엔군사령부에서 방송하다 1974년 미국으로 이민, 현재 뉴욕에서 거주 중이다. 김 회원은 컬럼비아대 의대 의사인 딸과 하버드대 바이오과를 졸업한 손자와 함께 오랜만에 고국을 찾아 부산을 여행하고 귀경하는 길에 정청래 의원과 동행한 인연으로 KBS와 국회를 방문하고 다음 날 출국했다.

한편 이성화 회원이 YTN 연중 캠페인 '새로운 일상'에 출연해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성화 회원은 11월 중 1일 2회, 2주간 방송된 캠페인에서 지역 공동체 라디오 관악FM에서 오전 6시에 방송되는 <쾌지나 청춘>의 월요일 '인생은 아름다워' DJ를 맡아 9년간 400여 명의 출연자들과 만나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일상을 선보여 감동을 주었다.

송년 모임 12월 27일(화) 오후 6시 퍼시픽호텔 연회장

특집 2022 한국아나운서대상

2022 한국아나운서대상 수상자

대상



KBS 이영호

“입사 20주년에 한국아나운서대상을 받을 줄이야! 상상도 못한 일이라 매우 기쁩니다.”

이영호 아나운서는 2018년부터 3년간 <5시뉴스>에 이어, 2021년 6월부터 <KBS 9시 뉴스> 앵커를 맡아 공영방송 아나운서로서 코로나 시국과 대선 등 굵직한 이슈를 바르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등 안정감 있는 진행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이 아나운서는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재학 중 교내 합창단과

아카펠라 그룹에서 활동했고, 캠퍼스 예능 <청춘스케치>에 출연해 우수한 적이 있다.

2002년 공채 28기로 입사해 <누가누가 잘하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자리 119> <소비자리포트> <퀴즈가 좋다> <오늘의 경제>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웠던 2020년에는 KBS협회장을 맡아 아나운서의 권익을 위해 애써왔다.

아나운서클럽상



SBS 염용석

“말은 바 책임을 다하며 화합에 기여하는 모범 아나운서에게 주는 상을 받다니 축스럽네요. 상을 주신 아나운서클럽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염용석 아나운서는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1996년 입사해, 20년 가까이 스포츠 뉴스를 비롯해 <아침종합뉴스> <인생은 아름다워>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 등을 진행했다. 스포츠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연예인 야구단에서도

오래 활동했고, 이미지에 맞게 살이 찌지 않으려 혹독한 다이어트도 했다고 한다.

2007년 한국아나운서대상 TV진행상을 수상한 염용석 아나운서는 2017년 한국아나운서연합회 17대 회장을 지냈고, 현재 아나운서팀 부장으로서 <SBS 12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cpbc 김슬애

“좋아하는 일을 기쁘게 해온 지 10년째 되는 해!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신앙심도 깊어진 의미 있는 시간에 방점을 찍는 상이라 더욱 감사합니다.”

김슬애 아나운서는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2012년에 입사,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그대에게 평화를...> TV <가톨릭 뉴스>를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공동 제작한 라디오 기후 위기 특집 <공동의 집, 지구 - 2050 거주 불능 지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라디오 부문 상을 받았다.

9월 9일과 10일 방송된 특집 <생명을 나눌 수 있나요?>를 비롯해, 12월 5일 <창작성가제>를 제작·진행한 김 아나운서는 “시청취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방송을 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장기범상



KBS 한국어연구부

올해도 한국어의 가치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한국어 포스터의 완전 디지털화를 목표로 2월부터 퀴즈 형식의 전자 게시판 형태로 제작해,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 유관기관, KT 170여 대와 SKT 120여 대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에 보급 중이며, 작년에 이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낭독 사업의 수정 보완 및 음성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명과 관련해 ‘키에프’를 ‘키이우’로 발음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KT 양순석상무

현재 KT 2,600여 개 사옥의 사내 TV와 KT가 관리하는 3만여 개 엘리베이터 스크린에 매달 한국어 포스터를 서비스하는 등 2022년 한국어 포스터 배포에 큰 공을 세웠다.

지상파 아나운서를 꿈꾸었던 양순석 상무는 KT 사내방송 KBN 아나운서로 출발해 임원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방송센터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나운서실과 협업하며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전파할 계획이다.

공로상



서기철(전 KBS)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KBS 대표 축구 중계 캐스터로 활약하다 올해 9월 정년퇴직 했다.

서기철 회원은 1987년 공채 15기로 입사, <6시 내고향> <생생 라디오매거진> <시사본부>를 진행했으며 축구, 마라톤, 육상 등 중계 캐스터로 활약했다. 2008년 제35회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을 수상했고, 후배 박은주 회원과 결혼한 아나운서 커플이기도 하다.

스포츠캐스터상



JTBC 임경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MBC에서 근무하며 각종 교양 프로그램과 스포츠 중계를 맡았다.

그 후 프리랜서로서 SKY SPORTS에 이어 JTBC3 FOX sports에서 <JTBC 골프매거진> 등 다양한 종목의 캐스터로 활약했다.

JTBC가 개국하며 본사로 발령받아 현재 아나운서팀장을 맡고 있다.

특집 2022 한국어나운서대상

라디오 진행상

시사

KBS전주 함윤호

〈패트룰 전복〉



2005년 입사, 현재 TV 뉴스를 비롯해 <터놓고 말합시다> 등을 진행하는 전주 지역 대표 아나운서이다. 수년째 특유의 날카로움과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적극적인 진행으로 <패트룰 전복>을 맡아 청취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CBS 서연미

〈이슈플러스〉



2018년 입사 후 <주말 뉴스쇼> <주말엔 서연미>를 맡아왔다. 지난 1년간 <이슈플러스>를 진행하며 음원 앱 FLO의 제작 지원을 받는 등 부지런하게 살고자 하는 MZ세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

교양

BBS 이효주

〈이효주의 싱싱라디오〉



2008년 입사, <행복한 두시> <BBS초대석, 좋은 인연입니다> <TV 붓다파플>에 이어 현재 <이효주의 싱싱라디오>를 맡고 있다. '통통 튀는 목소리로 유쾌하고 신나게 진행해 2021년 불교언론문화상 라디오 최우상을 받은 바 있다.

광주CBS 정정섭

〈정정섭의 12시에 만납시다〉



2008년 입사, 그동안 전남CBS <클릭 102.1> <이야기 남도> <애양원 가는 길> 등을 맡아 지역 정보와 문화 이슈를 전달하고, 시사 교양 유튜브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트>를 깊이 있게 풀어냈다. 현재 광주CBS <정정섭의 12시에 만납시다>를 진행 중이다.

음악

CBS 유지수

〈유지수의 해피송〉



2004년 입사, <12시에 만납시다> <음악풍경> 등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4월부터 <유지수의 해피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성을 살려 팝송 에세이 『팝의 위로』(2019)를 펴내고 북콘서트와 북토크를 여는 등 저변을 넓혀왔다.

TBS 이가희

〈이가희의 러브레터〉



2016년에 입사, <기적의 TV, 상담 받고 대학 가자>를 진행했고, <우리말 고운말>에서 활약 중이다. 2019년부터 <이가희의 러브레터>를 맡아 출연자가 노래 부를 때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흥을 돋우는 등 성인가요 전문 프로그램을 안정되게 이끌어왔다.

TV 진행상

교양

MBC 박연경

〈기분 좋은 날〉



2013년 입사해 청순한 목소리, 차분한 이미지로 <스포츠매거진> <기분좋은 날> <리얼스토리 눈> 등을 진행했다. 2018년부터 <기분 좋은 날>을 맡아 2020년 MBC 방송연예 대상 특별상을 받은 바 있다.

SBS 유혜영

〈좋은 아침〉



2010년 입사해 <한밤의 TV연예> <접속 무비월드> <K팝스타 3> <모닝 와이드>를 진행했다. 2006년 한중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입상, 패션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다. 2021년부터 <좋은 아침>을 맡아 친절하고 편안한 진행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시사

MBC 차미연

〈통일 전망대〉



시사 프로그램에 특화된 경력과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통일 전망대>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거진M> <손에 잡히는 경제>까지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오랜 시간 발군의 실력을 보여왔다.

OBS 유영선

〈생방송 어서옵쇼〉



2007년 공채 1기 아나운서로 입사, <오늘> <생방송OBS> <생방송 투유> 등을 진행했고 2015 아나운서대상 TV 진행상 교양 부문 상을 수상했다. 올 6월 선보인 <생방송 어서옵쇼>를 안정적으로 진행해 프로그램을 자리 잡게 하는 데 기여했다.

예능

KBS 부산 차재환

〈오아시스〉



2010년 입사해 현재 부산방송총국 아나운서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능력과 대중성을 겸비한 부산 대표 아나운서로, 교양과 예능을 넘나들며 야외 촬영 교양 예능 <오아시스>와 교양 <부네스코> 등의 프로그램을 능숙하고 유연하게 진행한다.

SBS 주시은

〈골때리는 그녀들 시즌 2〉



2016년 입사, 뉴스와 스포츠를 비롯해 <톡톡 정보 브런치> <접속 무비월드> 등을 진행했다. 애교 있는 활기찬 목소리에 영동한 매력으로 2021년 <골때리는 그녀들 시즌 2>에 합류, 축구 실력을 뽐내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앵커상

KBS 이규봉

〈KBS 7시 뉴스〉



2000년 입사, 현재 아나운서부 현업부장으로서는 현장 업무를 총괄하며 저녁 <KBS 7시 뉴스>를 수년째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뉴스 프로그램과 뉴스 특보 등에서 뛰어난 순발력으로 신뢰감을 인정받은 베테랑이다.

MBC 정다희

〈뉴스투데이〉



2021년 4월부터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뉴스투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경제 뉴스를 친근한 언어로 풀어내며 다양한 특보 상황에서 심층적인 정보를 충실히 전달했다.

우리말 지킴이 아나운서들 수상 소식 이어져

KBS한국어연구부 세종문화상 한국어 포스터 디지털화



언론사 중 유일한 한국어 공식 조직 KBS 한국어연구부(부장 김은성, 왼쪽 사진)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국어, 한국 문화 보존 계승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10월 8일 제41회 세종문화상 한국 문화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어 포스터를 디지털화해 배포처를 확대 보급하며 공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어문기자협회 제34회 한국어문상

SBS 김주우 MBC 김정근 KBS 정은승



한국어문기자협회(회장 이정근·중앙일보 어문연구소장)가 수여하는 제34회 한글어문상 수상자로 방송 부문에 SBS 김주우 아나운서팀 차장이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는다. 그리고 말글사랑 부문에 MBC 김정근 아나운서2팀 팀장과 KBS 정은승 한국어연구부 팀장이 한국어문기자협회장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28일 정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클럽 엠바고룸에서 열린다.

회 | 원 | 동 | 정

MBC 출신 회원들, 사우회 송년의 밤 참석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최윤형 김채영 정영희 김호준 조석영 정연호 차인태 고창근 박민정 권혁화 김선희 정경수 남궁미

2022 MBC 사우회(회장 장명호) 송년의 밤이 12월 8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 사우회 1,200여 명 회원 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근 회원의 사회로 열렸다. 차인태 고문을 비롯해 아나운서클럽 회원 10여 명은 봄 야유회에 이어 3년 만에 열린 송년의 밤에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클럽 회원들, 경남 창녕 트러스트포럼 행사 참가



왼쪽부터 최대현 문무일 정홍숙 최재형 박찬숙 성기학 차기정 유지현 조건진 김규홍 (직함 생략)

박찬숙 회장을 비롯해 김규홍, 정홍숙, 문무일, 차기정, 조건진, 유지현, 최대현, 전찬희 회원 등 9명이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의 초대로 경남 창녕에서 열린 제11차 트러스트포럼에 참가했다. 이번 포럼은 펜앤드 마이크 최대현(전 MBC) 부장의 '한일 동맹 가능한가?'란 주제 발표와 부산 '바른청년연합' 청년들의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트러스트포럼(the trust Forum)은 문무일 대표의 '신뢰 회복 운동'을 토대로 결성되어, 현재 국민의 힘 최재형 국회의원이 상임대표, 문무일 회원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KBS 남산70회, 충남 공주시 뭉치다



왼쪽부터 이종태 신상식 김원태 정도영 전옥수 김성호 오한신 윤동원 이주재 박교서

KBS 남산70 아나운서 모임이 11월 11일 11시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동기생 10명이 이종태 총무의 고향인 충남 공주를 방문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답사하며 회포를 풀었다.

메릴랜드 주지사 영부인 환영 행사 등 참가

박찬숙 (전 KBS) 회장



9월 18일 김규홍 책임 운영위원과 함께 '반남 박씨대중중' (서울 마포 동교동) 사무실에서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인 화가 유미 호건(한국명 박유미) 여사를 만나고, 국악신문과 함께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성공 기원 활동을 벌였다. 박 회장의 당고모뻘인 유미 호건 여사는 조카 이름도 '찬숙'이라며 반가워했다고 한다.

한편 박 회장은 10월 17일에는 메종글래드제주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용암해수혁신포럼'에 참가했다. 용암해수를 제주의 새로운 산업 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주최한 행사였다.

미뤄진 '2020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받아

이규향 (전 KBS)



12월 1일 오후 6시 앰배서더호텔 3층 보드룸에서 열린 중앙고 동문의 밤에 참석해, 그간 코로나19로 미뤄진 2020년 자랑스러운 중앙인상을 받았다.

노인의 날, 남양주시 시장상 수상

곽영신 (전 CBS)



10월 7일 4년 만에 열린 노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 지역 사회 봉사에 앞장선 공로로 시장상을 수상했다.

동탄노인대학(학장 어호선 회원) 특강

김상근 (전 KBS)



11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노인대학(학장 전 KBS 어호선)에서 특강을 했다. 강연은 나래울복지관 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노년을 위한 '노테크'란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 출간

이금희 (전 KBS)



10월 21일, 「우리, 편하게 말해요 - 이금희의 말하기 수업」을 출간했다. 1999년부터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서 15년간 1,500명의 학생을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는바를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하기의 태도와 기술을 공개한 책이다.

인천시 홍보특보로 임명 돼

손범규 (전 SBS)



인천시(시장 유정복) 민선 8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해 9월 23일 홍보특보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손범규 회원은 홍익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후 1995년 SBS 아나운서로 입사, <출발 모닝와이드> <SBS 아침뉴스> 등을 진행했고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홍익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2021년 10월 희망 퇴직 후 인천시 남동구에서 '손범규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며 정화예술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행사, 한미동맹평화컨퍼런스 사회 전찬희 (DEMA)



국군방송 ED 겸 아나운서로서 10월 6일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기념식' 사회를 보았다.

이어 10월 25일에 동 장소에서 열린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사진)의 사회를 보았다.

알림

고맙습니다

연회비
(9월 11일 ~ 12월 10일)
남하린(광주cpbc) 박소현

광고 유치


박찬숙 회장
자강산업(주) 300만 원

축하합니다

임지웅(KBS) 12월 10일 KBS 기술기획부 동료와 혼인
이현주(KBS) 11월 4일 변호사와 혼인
정지원(KBS) 11월 3일 득남
김도연(KBS) 10월 15일 의사와 혼인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현 12월 31일 대전CBS 정년퇴직
문영기 11월 30일 CBS 노컷뉴스
논설위원으로 정년퇴직

조의를 표합니다

유지현(전 SBS) 12월 11일 시부상
송재익(전 MBC) 12월 10일 부인상
서동숙(전 KBS) 11월 25일 본인상
임수민(KBS) 11월 24일 부친상
원종배(전 KBS) 10월 2일 장모상
최연수(KBS대전) 10월 1일 시모상
김주환(전 KBS) 9월 22일 본인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추모 카톡방 조사弔詞 모음



고 서동숙(전 KBS)
11월 25일, 향년 66세

- 김선동, 절절한 슬픔을 느끼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은 저와 5기 아나운서 동기로서 방송 잘 하는 아나운서였습니다. 갑작스런 부고에 황망할 따름이네요.
- 이계진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다니 참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서동숙 아나운서는 저와 1980년대 중반 KBS 1라디오에서 <오후의 교차로>를 진행했습니다. 활발히 방송할 때 가수 이태원 씨와 '술개' 등을 취입하고 '그대 라는 곡 노래 중간에 낭송을 맡기도 했습니다.
- 유명미 이태원 씨와 인터뷰 할 때 "그대 라는 곡의 중간 내레이션이 너무 좋다" 했더니 "시를 보내자 눈으로 대중 읽고 한 번의 오독 없이 완벽하게 아나운싱 해서 감탄했다"고 얘기하더군요. 아나운서가 가수 노래 더빙 도와주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참 용기있으셨다'는 생각도 했었지요. 좋은 곡에 영롱하고 순수한 더빙은 길이 남을 듯합니다.
- 성연미 대학 시절 서동숙 선배님을 보면서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습니다. 언저까지나 다정한 음성, 따뜻한 방송 기억하겠습니다.



고 김주환(전 KBS)
9월 22일, 향년 93세

- 김경숙, 고인은 1959년도에 저를 비롯해 여자 아나운서 5명과 청일점으로 입사했습니다. 당시 문화부 공보실에서 처음으로 남녀 함께 학사 출신 아나운서를 모집했는데, 합격하고 보니, 남자는 김주환 씨 한 분으로 우리보다 3, 4세 위셨습니다. 충북 청주 분이시고 연세대를 졸업하셨다 합니다. 우리가 워낙 다섯 명이 함께 하니 김 동기님과는 별로 이야기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워낙 성실하시고 말수가 없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철부지로 봤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신인 아나운서 때 청일점이라 우리가 할 일도 아무 소리 없이 대신해주셔서 보다 못한 장기범 실장님께서 우리한테 돌아가며 담배 재떨이라도 닦으라고 하셨을까요. 참으로 성품이 좋으신 동기님이셨습니다. 이후 중년에 들어서니 한번 뵙고 싶었는데, 다른 동기들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어 여의치 않았습니다. 동기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드립니다.



고 고광수(전 KBS)
7월 4일, 향년 71세

- 박찬숙 친절한 사람,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 김운대 부산과 서울에서 같이 근무하던 모습이 생생한데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30여 년 만인 작년 10월 18일 카톡으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 경기도 이천에 작은 텃밭이 있어서 가끔 내려가 농사짓는 흥내를 낸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 왕종근 광수야, 광수야! 어쩔려고 이리 빨리 갔느냐! 자네는 최고의 친구고 신사였다 부디 고이 잠들거라.
- 이소연 저와 사회교육국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도 함께 오랫동안 진행했어요. 참 선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코로나19가 잠잠하니 식사 한번 하자던 약속도 못 지키고 이렇게 부고를 접하니 믿어지지 않네요.
- 홍승택 이제는 서로 '콜사인' 대화는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십시오.
- 황인우 첫인상이 '배우' 같았지요. 전에 6기회 동기 모임에서, '두르고 온 실크 스카프가 멋지다'고 했더니 다음 모임에서 제게 전해주어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살뜰한 오라버니 같았는데, 갑작스런 부음에 황망합니다.



힘내라, 한국어! 18

한 나라의 표준어는 도량형度量衡과 같다

지역 사투리는 연구 가치는 있지만 국가 공용어는 표준어라야 한다



김상준 (전 KBS)
언문학 박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어와 표준발음에 대한 폼하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표준어는 서울말이어서 중앙집권적이고, 지방화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반한 것이어서 싫다. 지방 사투리는 정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니 살려 써야 한다.”

이것이 표준어 폼하의 이유이다.

지역 방언에 대한 애정과 연구는 필요하다. 그리고 사석에서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지역 방언에는 우리말의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 국어 연구에 도움을 주고, 민족성과 전통, 풍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역 방언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표준어를 폼하하는 것은 안 된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 말은 전체가 표준말인 양 착각하는 것도 문제이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말이 표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따로 표준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말도 전라도나 경상도 말처럼 서울·경기 지방에서 사용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비표준어도 많다.

서울·경기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표준어로 착각하는 일이 많다.

“그렇게 해구 있습니다.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리를 해구 있습니다, 시력을 발휘 못할 환경을 만들어 가구 있습니다. 그렇게 해구선”

위와 같은 말에서 ‘합니다, 하니, 할 것’이라는 말을 ‘햐니다, 해니, 햐 것’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ㅣ’모음 역행동화이다. 그리고 ‘하고, 하고선’이라는 말을 ‘해구, 해구선’ 등으로 하는 것은 ‘ㅣ’모음 역행동화와 모음상승 현상이 겹친 대표적인 서울·경기 지방의 사투리이다.

그러나 ‘ㄴ’을 ‘ㄹ’로 발음하는 모음상승 현상은 경우에 따라 표준어로 포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사투리로 분류된 ‘가구, 오구, 하구’는 표준어인 ‘가고, 오고, 하고’로 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가구요, 오구요, 하구요’를 ‘가고요, 오고요, 하고요’로 하는 것은 어감이 이상하다. ‘갔고요, 왔고요, 했고요’도 ‘갔구요, 왔구요, 했구요’로 해야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

‘~하는 거 같아요’라는 표현도 서울·경기지방 말인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다행히 방송에서 캠페인을 벌이다시피 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표준어는 국가 공용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국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해준다. 한 나라의 표준어는 국가의 도량형度量衡과 같다. 도량형은 길이와 부피, 무게를 재는 단위로 국가적인 통일이 되지 않으면 생활에 큰 혼란이 온다.

자신의 지역구 사투리를 즐겨 쓰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교직원, 군 지휘관 등 지도급 인사들이 국가의 도량형과 같은 표준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요즘 한국학이 개설된 유럽의 모든 대학이 학생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한다. 한류의 효과로 세계 각국의 여러 대학에 한국학과가 신설되고 한국어 강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설마 거기서도 전라도나 경상도 등 지역 방언을 사용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Zoom-in 박소현(전 MBC) 아트 디렉터와 아트 회사 대표로 새로운 도전

아나운서들의 예술 감각 참 대단해요!

나와 함께 라디오 <아침종합뉴스>를 담당했던 '서울대 나온 참한 후배', 박소현 아나운서가 지난 여름, 전시회를 기획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알고 봤더니, 미국의 줄리어드 출신 피아니스트를 꿈꾸었던 박소현 회원은 중학교에 진학하며 피아노를 접었지만 음악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언젠가 그것을 펼쳐 보이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딱히 기회가 없었다는데, 지금은 음악이 아니라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다니? 아트 디렉터로, 회사 경영자로 아트 꿈나무의 길을 걷고 있는 박소현 회원의 그간의 행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글 / 편집장 이현우(전 MBC)

• 방송하며 음악과 미술을 즐긴다

서울대 소비자동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에 모두가 선망하는 아나운서가 됐다. 주로 뉴스를 맡아 바쁘게 생활하다가 2009년 휴직하고 MBA 공부하는 남편을 따라 미국 뉴욕에서 생활하면서 드디어 '꿈의 줄리어드'를 만난다.

줄리어드음악학원 근처에 살았기에 성인을 위한 피아노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디션에 응시해, 4학기 동안 단체 연주회도 하며 못다한 꿈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러나 뉴욕은 음악만 품기에는 더 큰 도시였다. 뉴욕현대미술관(MOMA), 휘트니 뮤지엄, 메트로 폴리탄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과 유명 갤러리를 드나들며 2년간 문화적 혜택이 풍부한 뉴욕 생활을 즐겼다.

그렇게 미술관이나 갤러리 가는 일이 습관이 돼버린 나는 복직 후에도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떤 전시를 볼 것인지, 어떤 미술관에 갈 것인지에 따라 동선과 스케줄을 조정하였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대규모 전시회가 열렸을 때는, '호크니전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뉴욕 비행기표를 끊었고, 다행히 마지막 날 아슬아슬하게 전시를 볼 수 있었다.

그러다 2015년 방송일을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에 퇴사를 결심했다.

• 퇴사 후 진로 모색과 유튜브 개설

여러 가지 진로를 모색하며 팟캐스트도 직접 제작·진행해보고, 유튜브 개인 채널도 만들어서 기획부터 제작·편집·진행까지 내 손으로 다 경험해 보았다.

줄리어드에서 리사이틀을 경험했기에 '잘 준비하면 아마추어라도 무대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해 독주회를 열기로 했다. 그리고 2019년 11월 피아노 연주회를 앞두고, 피아노 관련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피아노 연주회 역시 처음 기획부터 무대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혼자 진행했다. 홀을 잡고, 포스터도 만들고, 티켓 판매도 요청하고... 모든 것이 낯선 경험이었지만, 내손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재미도 있었고, 결국 나를 크게 성장시킨 경험이었다.

연주회가 무사히 끝나고, 채널 내용에 변화를 주고 싶어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바로 예술과 관련한 이야기들이었다. 김환기, 박래현, 르코르 뷔지에 같은 예술가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예술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양미술사와 한국미술사에 돌입했고, 미술관과 갤러리들도 더더욱 열심히 다니며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 아트 디렉터로 활동 영역 넓혀

그렇게 아트 꿈나무의 길을 걷던 내게 제안이 들어온다. MBC 동료였던 이하정, 서현진 아나운서의 소속사에서 커머스와의 아트가 결합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대표의 제안으로 아트 디렉터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트 신사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일할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갤러리와 미술관을 오갔다. 그 과정에서 작가를 비롯해 화랑 관장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고 미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 최은경 회원과 김민경 작가 콜라보 기획



왼쪽부터 최은경 김민경 박소현

첫 결실이 아나운서 최은경 선배와 '위장된 자아' 시리즈 뺨뺨의 김민경 작가가 함께한 콜라보 기획전이었다. <뺨뺨 9>은 갤러리 공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작품 판매 및 티셔츠 굿즈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특이한 형태의 기획전이었다. 작가를 설득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리고 최은경 선배의 뛰어난 안목으로 굿즈의 세부 디자인까지 확정했을 때 설렘했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 갤러리 림(서울시 종로구 원서동)에서 팝업 전시로 작품들을 설치하고, 마지막 날 최은경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초이메종'에서 온라인 판매가 진행되었다. 최은경 선배는 설치뿐 아니라 현장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전시회 스케치를 하고 분위기를 띄운 프로 방송인이었다. 나는 홍보 기사를 직접 쓰고, 제일 중요한 작품 설명이 담긴 브로슈어를 만들었다. 처음 시도한 전시와 판매였는데, 성과는 만족스러웠다.

• 윤지영 아나운서 딸, 이유나 데뷔전 기획

이어 신인 작가의 데뷔전 기획과 글을 쓰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 주인공은 이유나 작가로 KBS 윤지영 아나운서의 따님이다.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갤러리 림에서 열린 이유나 작가의 'Magnified Curiosity'는 확대경을 통해 일상의 사물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안내하는 전시였다.

우리 아나운서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과 감각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 예술 칼럼 기고하며 콘텐츠 다루기

아트 디렉터 일을 하면서 흥미로운 분야는 글을 쓰는 것이었다. 몇 년 전부터 브런치를 통해 글을 써왔기에 글을 잘 쓰지는 못해도 글쓰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게다가 좋은 기회에 『여성조선』에 아트 칼럼을 기고하는

휴직 중 미국 줄리어드
피아노 클래스 이수
피아노 독주회 앞두고
유튜브 개설
콘텐츠 확장하며
아트 디렉터로 활동

일도 맡았다. 아트 칼럼을 쓰면서 더 확장시키거나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지점들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잡지의 구독층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발굴하고, 흥미를 끌 만한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게 어렵지만 꽤 재밌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스스로 기록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만큼, 그 사실을 늘 명심해 글을 쓰려고 노력한다.

• '프로젝트 10019' 란 회사 설립

지금은 'PROJECT 10019'라는 회사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회사명은 미술에 눈을 뜨게 만든 뉴욕집 우편번호 10019를 이용해 만들었다.

미술과 디자인에 관련된 기획이나 이벤트, 여러 가지 다양한 협업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 봄엔 강연 기획과 갤러리 개관전을 의뢰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방 송 가 소 식

KBS 한글 사랑에 앞장서는 아나운서들



제576돌 한글날을 맞아 KBS 아나운서실에서 한글날 특집 '고마워 한글'을 방송했다. 김진희(30기), 강승화(39기), 김도연(45기) 아나운서가 한글 지킴이로 나서 '쉽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듣기 좋은 한글'이란 네 가지 주제로 한글의 이로움과 고마움을 전했다. 또 직접 현장을 찾아 한글을 체험하고 분석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한편 일상에서 느끼는 한글의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알려줌으로써 한글이 주는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했다.

SBS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방송 10주년 맞아



러브FM(103.5MHz)에서 매일 새벽 두 시부터 네 시까지 방송되는 <이현경의 뮤직토피아>가 10주년을 맞았다. 2012년 1월 1일 이현경 아나운서가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육아 휴직으로 쉬었던 10여 개월을 제외하면 올 11월 13일이 정확하게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PD 겸 DJ 이현경 아나운서는 '뮤직토피아'의 사연을 모은 『모두가 잠든 새벽 넌 무슨 생각하니』를 비롯해 『아무것도 아닌 기분』과 『두근두근 내 일상의 소확행』 등 세 권의 책을 펴내 작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OBS 유진영, 수원화성 헤리티지 콘서트 최지해, 계양구 음악회 진행



유진영(왼쪽 사진) 아나운서가 10월 15일 수원화성 연무대 특설무대에서 수원화성 헤리티지 콘서트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만에 개최돼 2만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한 이번 음악회는 10월 30일 방송되었다.

최지해 아나운서는 10월 5일, 인천 계양 아시아드 양궁 경기장에서 계양구민의 날 음악회를 진행했다. 이번 음악회는 3만여 명의 관객과 함께 했으며 10월 17일 방송되었다.

febc 극동방송 인사 발령, 가을 개편 단행 광주 장대진 본부장, FEBC 편성국장 발령



장대진

내년 1월 1일자로 광주 장대진 본부장이 FEBC 편성국장 및 서울 방송 책임자로, 이인성 편성국장이 창원 지사장 및 방송 책임자로 발령된다.

한편 전국의 극동방송이 10월 24일 2022년 가을철 정기 개편을 단행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송', '한국 교회와 함께 전도하는 방송', '더 많은 청취자들과 같이 하는 방송' 등을 기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BBS 제8대 이사장 덕문 스님 취임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지리산 화엄사 주지이자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인 덕문 스님이 재단법인 BBS 불교방송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덕문 스님은 "미디어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해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교방송이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력을 가지고 이끌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MBC 2022 아나운서 낭독회 - 김훈을 읽는 밤



출판사 문학동네와 제휴해 매년 실시하는 '낭독회 - 우리들의 읽는 밤' 김훈 편이 황성숙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골든마우스 홀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했던 전년과 달리, 지난 11월 11일 금요일 밤, 관객석을 가득 매운 채로 아나운서들의 낭독이 시작됐다. 소설가 김훈이 함께 해, 대표적인 저서 '칼의노래, 현의노래, 하얼빈' 등을 비롯한 산문과 칼럼들을 살아있는 목소리로 만나볼 수 있었다. 평소 김훈 작가의 팬이자 지인으로 알려진 외과의사 이국중 교수도 자리해 그가 좋아하는 김훈의 문장들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낭독회의 녹화 영상과 작가 김훈의 인터뷰는 유튜브 채널 '뉴스안하니'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

CBS <정민아의 어메이징그레이스> 10주년 특집 제작

매일 아침 6시 생방송 CBS음악FM <정민아의 어메이징그레이스>가 지난 10월 29일, 10주년을 맞았다. 정민아 아나운서가 제작·진행한 10주년 특집기획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BEST 100' 방송은 12개 주요 일간지에서 집중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TBS 나선희, TV <시민 영상 특이점> MC로 합류 강지연, 원곡 개사해 트로트 싱글 앨범 발매



친근한 목소리와 재치로 FM <주말이 좋다>를 진행하는 나선희 아나운서가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TV <시민 영상 특이점>(사진)에 투입되어 김보빈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한다.

한편 강지연 아나운서가 트로트 가수 겸 작사가로 깜짝 데뷔했다. 강 아나운서는 가수 윤수현의 신곡 '남자들은 날 가만 안 놔둬'를 직접 개사해 부른 '부장님은 날 가만 안 놔둬'를 타이틀 곡으로 발매한 싱글 앨범은 멜론 등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cpbc 김지현, 동성고 셋별음악회 진행 이정민, 생명존중캠페인제작지원



김지현 아나운서는 지난 11월 동성고등학교 스테파노홀 대강당에서 열린 셋별음악회(사진)를 진행했다.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게 피아노 연주로 격려하고, 퀴즈를 풀며 치유의 시간을 선물했다.

한편 이정민 아나운서는 직접 제작 진행하며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와 함께한 cpbcFM 생명존중캠페인 <청년, 힘들땐 말해요> 제작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jtbc 보도 프로그램에 아나운서팀 전면 투입 김하은, 신설 <상암동 클래스> 진행



김하은

11월 14일부로 새 단장한 보도 프로그램들에서 아나운서팀의 활약이 돋보인다. 메인 뉴스인 <뉴스룸>의 앵커를 모두 아나운서팀이 맡았다는 것은 이번 개편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안나경 아나운서는 새 파트너와 함께 변함없이 주중 '뉴스룸'을 이끌고, 주말 '뉴스룸'에는 강지영 아나운서가 투입됐다.

그리고 김하은 아나운서가 새 프로그램인 <상암동 클래스>(이하 <상클>)의 안방마님이 됐다. 기존에 진행하던 <아침&이 정통 뉴스>를 표방했다면, <상클>은 주요 뉴스부터 생활 정보까지 알차게 아우른다.

고객의 제품에 가치를 더하고, 고객의 성공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자강그룹은 1974년 연포장필름 제조를 시작으로 1983년 플라스틱 사출성형, 1986년 정밀화학분야로 진출해 반세기에 걸쳐 고객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연포장필름

- 나일론필름, 산업용 OPP필름
- 농업용PE필름, 특수포장용필름
- 국내유일의 연포장 필름 종합메이커

정밀화학분야

- PVC안정제 및 첨가제 제조
- 화공약품 수입, 유통

플라스틱 사출성형

- 생활가전부품 (삼성전자 외)
- 자동차부품 (현대, 기아자동차 외)
- 의자 가구, 스마트팜, 기타



자강산업(주)
케이디켄(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산동자강소료유한공사(China)
산동KDC화학유한공사(China)
YOUNGCHEM(Mexico)

(주)자강
제이케이엔(주)